

2023. 6. 29.(목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6월 29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

복지정책과장

하영태

2133-7310

복지정책팀장

송수성

2133-7312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 수 : 3쪽

담당자

박지애

2133-7332

### 서울시 '폐지수집 어르신과 안전한 동행', 여름철 안전·냉방용품 지원

- 폐지수집 어르신 1,800명 대상 안전조끼·쿨타워·쿨토시 지원
-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,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, 한국자산관리공사 뜻깊은 나눔에 동참
- 야간 교통사고나 혹서기 온열질환으로부터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

-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,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,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피기 위한 안전·냉방용품을 지원한다.
- 지원대상은 관내 폐지수집 어르신 1,800명으로 개인별로 안전조끼, 쿨타워, 쿨토시 총 3가지 물품을 후원한다. 전체 지원규모는 1,400만원 상당이다.
  - 6.29(목) 오전 10시,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후원업체 간 기부전달식이 열리며, 후원 물품은 7월 초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전달된다.
- 폐지수집 어르신은 재활용품 수거업무 특성상 어두운 밤이나 새벽에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, 무거운 리어카를 끌기 위해

자동차 도로를 이용하는 등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. 또한, 여름철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도 취약하다.

-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맞춤형 물품을 준비하였으며, 물품지원과 연계하여 자치구별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.
  -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구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지원품목을 정하였으며,
  - 안전조끼는 망사소재로 통기성이 좋고 형광색에 반사띠가 있어 작업자 안전 보호에 용이하고, 쿨토시와 쿨타워는 기능성 소재로 여름철 야외 활동 시 고열차단과 피부 보호 효과를 가진다.
  - 지원물품은 또다른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해 준비하였다.
  - 교통안전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홍보물 배포 형태로 진행되며, 고령 어르신들의 취약점(시력, 청력 저하), 교통행태(무단횡단, 도로 보행 등) 등을 고려하여 폐지수집 활동 중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교육한다.
  
- 이번 지원은 서울시의 「2023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계획」에 따라, 민간 복지자원을 활용한 안전용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.
  - 서울시는 「2023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계획」에 따라 관내 폐지수집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‘돌봄’, ‘생계·주거’, ‘일자리’, ‘안전’ 등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,
  - 주요 지원내용은 (돌봄 분야)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,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안전·안부 확인, 생활교육, 병원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, 방문간호사 연계 건강관리 (생계·주거 분야) 긴급복지 및 임차료 보조 등 주거지원 (일

자리 분야) 어르신 적합 공공일자리 연계, (안전 분야) 교통사고 예방 및 혹서기·혹한기 대비 용품 지원, 안전 의식 전파 등이다.

-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“폐지수집 어르신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기꺼이 나눔을 실천해주신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에 감사드린다.”라며 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약자와 동행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겠다.”라고 말했다.

※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현장의 수요와 기업 등 민간의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.

-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“이번 물품 지원이 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도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,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기부 물품 사진

